

공적 담론의 주체로서의 여성

: 여성의 한글 소지(所志) 쓰기를 중심으로

황인순*

차례

1. 서론
2. 소지의 형식과 한글 소지의 의사소통구조
3. 형식적 · 내용적 의사소통구조를 통해 분석한 여성의 한글 소지
 - 3.1 충청남도 노성에 사는 백 조시의 발괄 분석
 - 3.2 공주 정안면 도현리에 사는 미망인 정씨 원정 분석
4. 공적 지식체계와의 매개로서 여성의 한글 소지 쓰기
5. 결론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여성의 한글 소지를 대상으로 하여 쓰기 양식의 형식적 적용과 법체계 인식의 내용적 인식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분석하고 한다. 한글로 기술된 고문서는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엄연히 공적인 문서이며 본고에서 다룬 대상은 한글로 기술된 여성의 소지(所志)이다.

소지를 통해 공적 맥락의 글쓰기를 수행하는 것은 공적 담론의 체계에 편입하는 것이다. 여성이 기술한 한글 소지는 애초에 한문으로 기술된 소지와 비교해 그 존재부터 예외적인 것이었다.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서 여성의 한글 사용이 늘면서 한글 소지 역시 공적인 권리를 가진 문서로 인정되었으나 일종의 이형(異形)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소지는 공적 담론의 형식적 규약을 전면화하는 쓰기이면서 동시에 여성 주체라는 예외적 존재가 한글이라는 글쓰기의 도구를 가지게 된 후 공적 담론의 체계 내

*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에서 어떻게 발화하는지를 보여주는 텍스트가 된다. 따라서 소지의 담화적 구조는 그 형식적 구조와 내용적 구조가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망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한글 소지는 여성 주체들의 공적 글쓰기 체계 편입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법적 해석과 관련된 세계의 편입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읽기와 쓰기의 배제는 공적 수행과 행위의 배제를 수반한다. 그러나 한글 소지 쓰기는 여성들이 실질적인 법적 해석과 수행의 주체로 기능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미세하나마 보여준다. 다양한 목소리들이 법적 체계의 해석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해석의 양식이 변형되고, 이는 기록으로 남겨져 누적된다. 비록 여성 주체들의 해석이 기존 법적 체계의 세계관을 이어받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주체의 변모는 체계의 변형 가능성을 작지만 명확하게 시사한다. 그러므로 한글 소지는 여성들이 공적 해석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공적 담론과 사적 담론의 매개자로서 점차 그 범위를 확장하는 연속적이고도 독립적인 체계의 구축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핵심어 : 한글 공문서, 한글 소지, 여성 지식, 형식적-내용적 구조, 한글 글쓰기

1. 서론

본고에서는 여성의 한글 소지를 대상으로 하여 쓰기 양식의 형식적 적용과 법체계 인식의 내용적 인식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분석하고 한다. 한글 인간은 대부분 여성 저자의 것으로 이를 통해 관련된 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된다. 이러한 인간을 통해서는 다양한 생활사의 양상을 도출할 수 있는데, 삶의 애환과 사적 관계에 대한 기술 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여성들이 기술한 공적 문서들이 있다. 한글로 기술된 고문서는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엄연히 공적인 문서이며

본고에서 다룬 대상은 한글로 기술된 여성의 소지(所志)이다. 소지는 다양한 신분의 발신자들이 억울함을 고해 관부에 판결을 요청하는 문서로 원정, 발괄 등의 용어로도 사용하지만 본고에서는 ‘소지’라는 용어를 통해 통합적으로 기술한다.¹⁾

소지를 통해 공적 맥락의 글쓰기를 수행하는 것은 공적 담론의 체계에 편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이 기술한 한글 소지는 애초에 한문으로 기술된 소지와 비교해 그 존재부터 예외적인 것이었다.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서 여성의 한글 사용이 늘면서 한글 소지 역시 공적인 권리를 가진 문서로 인정되었으나²⁾ 이는 일종의 이형(異形)으로 인식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지는 공적 담론의 형식적 규약을 전면화하는 쓰기이면서 동시에 여성 주체라는 예외적 존재가 한글이라는 글쓰기의 도구를 가지게 된 후 공적 담론의 체계 내에서 어떻게 발화하는지를 보여주는 텍스트가 된다. 따라서 형식적 구조와 내용적 구조가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망으로서 소지의 담화를 이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통 지식의 체계인 법률과 관습, 제도 등을 개별적인 여성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며 확장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여성의 한글 글쓰기 중 인간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진 데 반해³⁾, 한글 고문서나 소지 개별에 대한 문학적 접근은 그렇게 활발

1) <유서필지>에 따르면 사대부가 중앙의 관부에 올리는 것을 단자, 민이 지방의 관부에 올리는 것을 발괄 등으로 나누는 등 발신자와 수신자에 따른 구분이 있기는 하다. 이상규는 이를 임금에게 직소하는 상언과 격쟁, 사족층의 등장, 상언, 소지, 단자, 하민층의 원정, 발괄, 언문단자 등으로 구분한다. 이를 하나로 포괄하는 용어로서 선행연구에서 ‘소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본고에서도 소지로 용어를 통합하기로 한다.

전경목 외, 『유서필지』, 2006, 사계절, 38-41쪽.

이상규, 『한글 고문서 연구』, 2011, 경진, 347쪽.

2) 이상규, 『한글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 사람들의 삶-한글 고문서 자료집』, 2011, 문화체육관광부, 350쪽.

3) 다양한 간찰에 대한 연구 중 김정경은 간찰의 양식적 글쓰기와 형식의 내면화를 통해 여성 주체들이 자신의 삶을 체계의 구성요소로 의미화했음을 확인하면서 글쓰기의 형식과 주체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본고에서도 글쓰기의

히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문서 연구 분야에서 소지 형식과 기술 방식에 대한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⁴⁾ 또한 어학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선행연구⁵⁾들을 참고했다. 그 중 백두현은 다양한 한글 자료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을 연구했으며 이 중 한글 편지와 고문서들을 따로 분류했는데 이것이 가장 본격적인 한글 공문서와 여성 주체에 관한 언급이다.⁶⁾

2. 소지의 형식과 한글 소지의 의사소통구조

소지(所志)는 발신자가 사적 개인이라는 점에서는 사적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요구를 기록해 관부에 올리는 문서”라는 문서의 특질을 고려한다면 공적 영역의 문서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상규는 “한글로 작성한 소지, 원정, 백활(발괄) 등은 노비나 천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형식이며 사대부가에서는 단자나 상언, 상서의 형식을 사용했다”는 분류⁷⁾라 지적했으며 동일한 내용은 『유서필지』에도 언급된다. 소지, 원정, 발괄, 단자, 상언 등의 다양한 용어들

형식적, 담화적 특질에 주목하고자 한다.

김정경, 『조선 후기 여성 한글 산문 연구』, 2016, 서강대학교 출판부, 56-85쪽 참조.

4) 김성갑 외, 『소송과 분쟁으로 보는 조선사회』, 2017, 새물결; 박병호, 『한국법제사고』, 법문사, 1987.

5) 백두현,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 - 한글 편지와 한글 고문서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42, 한국문학언어학회, 2005, 39-85쪽; 안승준, 『조선시대 한문-한글 병용 古文書 三例의 고찰』, 『국어사연구』18, 국어사학회, 2014, 119-159쪽; 이상규, 『17世紀 黃汝一의 淑夫人 完山 李氏 한글 遺書와 所志』, 『동아인문학』 16권 16호, 동아인문학회, 2009, 65-102쪽; 홍윤표, 『한글 고문서의 연구 현황과 과제』, 『영남학』 10권 10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6, 185-262쪽; 홍은진, 『求禮文化柳氏家の 한글所志에 대하여』, 『한국고문서연구』 13, 한국고문서학회, 1998, 111-143쪽 등을 참조했다.

6) 백두현, 위의 논문, 70-72쪽.

7) 이상규, 앞의 책, 2011a, 347쪽.

은 수신자와 발신자의 분류만 달라질뿐 유사한 공문서를 가리킨다.

소지는 한문 소지와 한글 소지로 나누어지는데, 한문 소지를 사용하다가 이후 한글 소지로 확대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고문서 기록을 통한다면 “한자, 이두, 구결, 한글을 포함하는 4종의 문자를 운용한 셈인데 한글로 된 고문서 자료들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한글이 공적 문서의 영역에서도 활용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⁸⁾ 그러나 “한글 고문서는 단순히 문자의 차이 뿐 아니라 문서 양식과 내용에서도 차이를 보여주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한글 소지가 문서의 격식에서 벗어나 한글 언간의 형식으로 변모”했다는 점을 지적한다.⁹⁾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술의 형식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문헌학적 관점에서든, 어학적 관점에서든 소지의 공문서적 형식은 연구의 중심이다. 소지는 “문서 명칭과 본문으로 구성되는 서술 양식, 재판 담당자가 결과를 처결하고 판결자의 착명과 수압, 인장과 재판일을 명기하는 서술 양식으로 구성”된다.¹⁰⁾ 우선 소지 형식의 근간이랄 수 있는 한문 소지 형식을 살펴보면 비교적 간결하게 사건의 개요를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사건의 정황과 전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부분을 통해 본문을 구성한다. <유서필지>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한문 소지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¹¹⁾

	단자	발괄	발괄
발신자	사대부	민	여성
수신자	오부, 형조, 한성부	고을수령	(고을수령)
시면	‘某部某洞居幼學某單子’ (모부 모동에 사는 유학)	‘某地居閑良白活(모땅에 사는 한량 모씨의 발괄)’	‘某地居某召史白活(모땅

8) 이상규, 앞의 책, 2011b, 13쪽.

9) 이상규, 『한글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 사람들의 삶-한글 고문서 자료집』, 2014, 경진, 228쪽.

10) 이상규, 앞의 책, 2011a, 349쪽.

11) 전경목 외, 위의 책, 2006, 238-241쪽.

	모씨의 단자)		에 사는 모조이의 발괄)
기두	‘憑鑑伏以(삼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말씀드리건데.)	‘右謹陳所志矣段(위와 같이 삼가 소지를 올립니다) ‘右謹陳至寃情由事段(위 와 같이 삼가 지극히 원통한 사정을 아웁니다	‘右謹陳所志矣段(위와 같이 삼가 소지를 올립니다) ‘右謹陳至寃情由事段(위 와 같이 삼가 지극히 원통한 사정을 아웁니다
결사	‘無任祈之至(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無任泣祝(울면서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伏乞參商教是後云云 千萬望良爲白只爲(엎드 려 바라건대 잘 살펴보신 후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웁니다)	‘伏乞參商教是後云云 千萬望良爲白只爲(엎드 려 바라건대 잘 살펴보신 후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웁니다)

표 2 『유서필지』에 기록된 한문소지의 양식 일부

다음은 이에 기반해 기술된 『유서필지』의 <한문 소지> 예시이다.¹²⁾

소지에서는 이처럼 시면, 기두, 결사 등의 어구가 공식화되어 있으며 1) 문서 제목 및 발급 연월일 2) 기두어 3) 본문 4) 결사 5) 처분양식 등의 필수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글 소지 쓰기와 한문 소지 쓰기를 구분할 수 있다는 논의를 참고하였지만 이와 같은 문서 규범은 한글 소지에서도 유지된다.¹³⁾ 한글 소지에 나타나는 쓰기 방식의 변형은 따라서 완전한 변형이라기보다는 공문서적 형식에 기반한 일종의 변주인 것이다. “19세기-20세기 이전의 자료들은 한글 인간의 형식과 혼류된 예”를 찾아볼 수 있다는¹⁴⁾ 언급은 한글 소지가 한문의 양식을 이어받으면서도 그

12) 전경목 외, 앞의 책, 238-241쪽.

13) 문서 제목에는 연도, 발신자와 수신자가 기술된다. 한글 문서로 바뀔 경우 기두사는 한문의 투식화된 형식으로 “우근언 지원국통스단은”, “우근월 만만원통결박정유스단은”, “우근언 여의신의” 등으로 나타난다. 결사 역시 한문 원정의 투식을 따르는데 “천만 축수바라기위”, “천만적선헝기위 횡하향교시스”, “천만 축수바라기위 횡하향교시스” 등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인 처분양식은 문서의 공식적 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착관의 공간과 관인공간, 제사의 공간을 마련해 둔다.

이상규, 앞의 책, 2011a, 363쪽.

14) 이상규, 위의 책, 2011a, 361쪽.

	<p>O면 OO리에 사는 한량 000 발괄</p> <p>삼가 소지를 올리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장토가 안 전주께서 다스리시는 OO리에 있는데, 급한 빛에 쪼들려 O자 전 O일경과 O자 답 O마지기를 3년 안에 도로 물린다는 조건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OO에 사는 000에게 임시로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가을에 도로 물리고자 하였더니, 000가 ‘지금은 가을 농사가 한창이니, 우선 추수가 끝나고 난 뒤에 물려 주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일의 형세를 따져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무리하게 독촉할 수도 없었습니다. 추수가 끝나기를 기다려 당초 팔았을 때 받은 값을 마련하여 보내면서 그 문서를 돌려받으려 하였는데 그는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초 영영 팔 생각으로 그 문서를 작성하였다가 지금 도로 물리고자 한다면 잘못이 제게 있겠지만 이미 문서 중에 임시로 판다는 뜻의 ‘권매’ 두 글자가 들어 있는데도 그는 무슨 속셈인지 도로 물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에 우러러 하소연합니다.</p> <p>제사.</p>
--	--

표 3 『유서필지』의 <한문 소지> 예시

문체적 특질이나 글쓰기의 구성에서 다소 자유로워지거나 변형이 있었던 셈이다. 소지는 공문서이므로 그 형식적 규약이 강력하게 작동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한글 쓰기의 사적 형식 중 하나인 인간과의 혼용이 발견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남아있는 여성 소지의 17%가 한글 소지이며 남성 소지에서는 한글 소지를 거의 발견할 수 없다는 점과 비교된다”는 지적¹⁵⁾은 한글 소지의 담화적 특질이 여성 소지의 담화적 특질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¹⁶⁾ 이는 다시 말해 한글 쓰

15) 국사편찬위원회, 『고문서에게 물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 두산동아, 2009. 233쪽. 이상규, 위의 책, 2011a, 361쪽 재인용.
 16) 이와 관련해 홍운표는 한글 고문헌의 글쓰기를 크게 A,B,C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모든사람이 보고 이해할수 있는 표기법(A 표기법), 개인표기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표기법 (C 표기법), 그리고 정연한 규범이 정해지지 않은 표기법이면 서도 언중이 해독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표기법(B 표기법)으로 나누었다. 대부분의 한글 고문서의 표기법은 B표기법으로 분류하면서, 사회적인 표기의 규범을 따

기의 확장을 통해 공적담론에 여성 주체의 참여가 이례적으로 늘어났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여성들은 소지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공적 문서의 형식을 습득하며 동시에 체계 내의 다양한 관습과 관련 법규들을 학습했을 것이다.¹⁷⁾ <유서필지> 내에서도 여성의 소지 양식을 따로 분류한 것 역시 법적 과정에 개입하는 주체로서 여성의 특질을 보여준다.

따라서 분석을 위해서는 한글 소지의 담화적 특질을 규정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형식적·내용적 층위의 이중적 의사소통 구조로 파악하고자 한다. 형식적 구조파악은 표면에 나타나는 글쓰기 담화 차원으로, 그 형식을 이해한 상태에서 개별 발신자인 여성들이 수신자인 관부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가능하다. 한글 소지에서 발견되는 공문서적 형식이 어떻게 적용되고 그 문체와 기술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형식적 구조 뿐 아니라 내용적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분석하는 것은 여성의 한글 소지라는 구별된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는 소지에 나타난 청원의 내용이 어떠한 논리적 규약에 기반하는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소지는 기본적으로 쟁점에 관해 기술하는 문서이므로, 발신자의 주장은 공동체 내의 법규, 혹은 더 넓게는 윤리나 관습적 판단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실제로 자신이 제기한 문제들과 관련된 법규나 관습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자신의 문제에 어떻게 적용했는지와 관련된다. 이는 공동체의 규약과 법규를 따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개별

르기는 하지만 결국은 발신자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며, 생생한 표기가 드러나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홍윤표, 앞의 논문, 2006, 18쪽.

- 17) 이와 관련해 홍인숙 역시 근대 계몽기에도, 습득한 지식의 방향과 관련없이 여성들이 원하던 지식은 공적 영역에서의 글쓰기였으며, 이와 같은 글쓰기가 결국 한문적 글쓰기의 번역적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적 영역에 참여하며 끊임없이 공적영역 글쓰기를 욕망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구성할 수 있었다는 논의를 제기한 바 있다.

홍인숙, 『근대계몽기 지식, 여성, 글쓰기의 관계』, 『여성문학연구』 2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79-82쪽 참조.

적인 사건으로 제시되는 부분이며 소지의 주체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¹⁸⁾ 이는 소지 보편의 특질이면서 소지의 발신자들이 관련된 사건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발화했는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소지의 구조를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으로 나누어 보는 방식을 선택하고자 한다. 하나는 소지 자체를 메시지로 하고 발신자가 여성이며 수신자가 관부가 되는 형식적 의사소통 구조이며, 두 번째는 그 소지의 내용적 측면에서 어떤 논리의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적 구조이다. 기존 형식의 답습과 일부의 변형이라는 형식적 구조와

18) 소지의 작성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또다른 기술 맥락은 대필과 대서인(代書人)의 존재이다. 이는 소지의 공문서적 성격 때문인데, 박병호는 문서의 작성이 대부분 대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김성갑은 소송의 소지 작성과 관련해 “당시의 소송은 철저한 문서주의였으며 그러한 관용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대필’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아울러 “『유서필지』등 문서의 양식과 예시가 수록된 책 역시 간행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통해 소지를 작성해야 했음”을 강조한다. 이 논의에 대해 백두현은 “문서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이 관련된 고문서라 해도 당사자가 문서 필사자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문서 작성 후 여성이 문서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 참여했을 것이거나 초고 작성에 참여했을 가능성 역시 제시하며 문서 기술에서 여성의 역할 범주가 가변적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상현은 소지 작성의 맥락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완산 이씨의 한글 소지가 ‘초문기’(초안)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백두현의 의견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논의들은 일관적으로 소지 작성에 있어서 대필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송과 재판의 정황을 고려할 때 소지 작성에서 대필자가 필요했음을 추론하게 한다. 그러나 이는 소지를 포함한 공문서 보편의 쓰기에서 드러나는 유표적 관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여성의 이름으로 작성된 소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한글로 기술되면서 소송 당사자인 여성이 내용과 형식을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으며 여성의 이름으로 된 소지가 공적 문서로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내용적 측위를 분석해야 하는 당위는 이러한 소지의 기술 특징과도 연관되는데, 내용적 측면에서 드러나는 해석자로서의 주체성은 적어도 공식화 되기 이전의 쓰기 맥락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를 대필자가 그대로 옮겼다고 해도, 혹은 축약 변형해서 옮겼다고 해도, 해석자가 구성한 ‘내용’이 변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성갑 외, 앞의 책, 2017, 53쪽; 박병호, 앞의 책, 315쪽; 백두현, 앞의 논문, 75쪽; 이상규, 앞의 논문, 89쪽.

기존 법규의 적용과 개별적 해석이라는 내용적 구조는 그 작용의 양상이 유사하다. 실제로 소지제출자는 민원의 대상에 대해 내용을 달리하는 전략을 동원하며 이를 통해 시대의 법감정 혹은 법의식을 탐색할 수 있다는 정공식의 논의가 있었다. 예를 들어 토지 도매 과정에서 호소하는 이의 억울함과 상대의 간사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관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부세와 관련해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술한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¹⁹⁾ 따라서 소지의 형식과 내용의 이중적 분석을 통해 이러한 양상을 통합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규의 연구에서는 한글 소지들을 정리했는데 그 중 여성이 발신자로 추정되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⁰⁾

번호	발급일	문서명	소장처
1	옹정 5년(172 6)	충청도 부여현에 사는 고 영부사 이이명의 처 김씨부인의 상언	개인소장
2	신유년(1 801)	이찬 부인 조씨의 상언	개인소장
3	병신년(1 656)	황중윤의 숙부인 완산이씨 소지	국학진흥원
4	갑술년	몽도면 수락리에 사는 미망인 최성이 성주에게 발급한 원정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
5	갑오년(1 894)	충청도 홍성군 은하면 상곡리 김과부가 성주에게 발급한 원정	개인소장
6	경자년	서면 반곡리에 사는 김소사가 관주에게 발급한 원정	규장각
7	계미년	해안면 망하에 사는 정소사가 관사에게 발급한 원정	규장각
8	계미년	홍산 해안면 망하에 사는 정소사가 수의사또에게 발급한 원정	규장각
9	기묘년	도내 공주 진두면 야곡리에 사는 미망인	규장각

19) 정공식, 『조선 후기 소지에 나타난 민의 청원 전략-예안 광산김씨 가문을 중심으로』, 『소송와 분쟁으로 보는 조선사회』, 2017, 새물결, 227-272쪽 참조.

20) 이상규, 앞의 책, 2011b, 156-158쪽.

		유씨가 순상에게 발급한 원정	
10	기묘년	월오 동면 산성리에 사는 김과부가 성주에게 발급한 원정	규장각
11	기묘년	진두면 야곡리에 사는 미망인 유씨가 성주에게 발급한 원정	규장각
12	병자년(1816)	구례에 사는 류 충천 손부 조씨가 순상에게 발급한 원정 1	
13	병자년(1816)	옥수 류진익의 처 조씨가 성주에게 발급한 원정 2	
14	병자년(1816)	구례에 사는 류 충천 손부 조씨가 순찰사에게 발급한 원정 3	
15	계유년(1873)	충청도 정산현 청면 지곡리에 사는 김씨가 성주에게 발급한 원정	개인소장
16	기유년	신곡리에 사는 장조사가 동주에게 발급한 원정	규장각
17	기유년	용화동 신곡리에 사는 장소사가 사또주에게 발급한 원정	규장각
18	기축년(1889)	이곡삼의 모 유씨가 성주에게 발급한 원정	국민대학교
19	기해년	과부 김씨가 성주에게 발급한 원정	홍윤표 교수
20	미상	전주동에 사는 고헌생 이흥선의 처 과부 김씨의 원정	개인소장
21	무진년	해평에 사는 김조사가 동주에게 발급한 원정	규장각
22	병자년(1876)	공주 정안면 도현리 미망인 정씨 부인이 순사도에게 발급한 원정	개인소장
23	신미년	북변면 미망인 구씨가 성주에게 발급한 원정	규장각
24	신축년(1901)	충청도 천안 원이면에 사는 백씨 과부가 시찰사또에게 발급한 원정 1	규장각
25	신축년(1901)	충청도 천안 원이면에 사는 백씨 과부가 시찰사또에게 발급한 원정 2	규장각
27	갑진년(1904)	충청도 노성에 사는 백씨 여인이 여산 군수에게 발급한 발괄1	전북대학교
28	갑진년(1905)	충청도 노성에 사는 백씨 여인이 여산 군수에게 발급한 발괄2	전북대학교

29	갑진년(1906)	충청도 노성에 사는 백씨 여인이 여산 군수에게 발급한 발괄 ³	전북대학교
30	경술년(1910)	포곡면 수하동 오월쇠 어머니 박소사의 발괄	고 김일근 교수
31	신축년	서상면 중강리 김소사가 안전주에게 발급한 발괄	규장각
32	기사년(1689)	한성 남부동에 사는 조지원의 처 정씨가 예조에 발급한 언문단자	개인소장
33	병오년(1906)	복삼면 모곡리 미망인 윤과부 언문 단자	개인소장
34	신사년	내산내면 마전리에 사는 정소사가 관사에게 발급한 언문단자	규장각
35	정유년	흥안 송면 거장리 이씨 과부의 언문단자	고 김일근 교수
36	기○년	월오동 산성리에 사는 김과녀가 성주에게 발급한 언문단자	규장각

표 4 여성의 한글소지 목록

3. 형식적 · 내용적 의사소통구조를 통해 분석한 여성의 한글 소지

형식적 구조는 기존 소지의 규범적 틀을 어떻게 이어받는지를 중심으로 분석되며 그 쓰기와 문체의 특징 역시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본고에서 좀 더 집중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적 구조로, 논리적 측면에서 그 의사소통의 구조는 소지에 적용된 법규가 내적으로 발수신되는 과정이다. 예컨대 ‘돈을 훔치면 안된다’는 것을 일종의 사회적 법규로 인식한다면, 소지를 쓴 주체가 이를 자신이 경험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지를 기술한 주체는 ‘돈을 훔치면 안된다’는 사회적 법규를 수신한 수신자이면서 자신의 개별적 경험, 예를 들어 ‘누군가 시장에서 내 돈을 훔쳤다’를 개별 사건에 적용하여 발화하는 발신자가 된다. 이처럼 내용적 측면의 의사소통구조에서는 공적인 지식이 기반이 되어 적용될 수 있는 법규와 관습을 선택한다. 이 때 발신자, 즉 소지 주체의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적용이나 해석이 필요하므로 그 개별적인 해석의 과정이 개별 소지의 논리를 구축한다.

그러므로 소지 내에서 일어나는 1차적 의사소통은 우선 발신자로부터 판결을 관장하는 인물인 수신자에게 소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것이 소지의 형식적, 혹은 표면적 의사소통 구조이다. 그런데 이것이 발화되려면 이전에 발신자와 수신자의 전환이 있는 심층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건과 관련해서 발신자가 제시한 논리는 내용적 의사소통 층위에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소지를 쓴 사람이 그 이전에 관련된 규약을 학습했어야 한다. 그것이 내용적 층위에서 나타나는 단계1이다. 즉, 문제를 제기한 사람의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인식되는 문제가 드러나고, 이는 관련된 두가지 관습적, 법적 규약²¹⁾의 존재를 암시한다. 단계2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논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다 넓은 범위의 법지식을 포괄하는 단계1이 그 구조 내에 잠재된 것이다. 이중에서 본고의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상반된 글쓰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두 한글 소지이다. 기존의 형식적 규약을 기반으로 여성 주체의 글쓰기 태도를 드러내는 소지와 형식적 규약에 기반하고 있지만 그 글쓰기 태도의 변화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소지이다. 내용적 층위의 소통이 형식적 층위를 통해 발현되는 양상을 통해 공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발화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충청남도 노성에 사는 백 조시의 발괄 분석

첫 번째 소지는 <충청남도 노성에 사는 백 조시의 발괄>로 비교적 한

21) 본고에서 사용한 공통지식체계란, 특정한 공통체 내에서 통용되는 규범이나 약속, 법규등을 통용한다. 법률적 판단과 연관되는 소지일지라도 발신자가 사용하는 지식이 반드시 법규로부터만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규범과 관습과 같은 개념들도 이에 속한다고 보았다. 자료의 학습과 읽기 혹은 전-판결의 경험 등이 공통지식체계를 구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문 소지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알려진 문서²²⁾이다. 이 글은 1904년 백씨 여인이 전라도 군수에게 보낸 소지로 비교적 짧고 명료하게 상황을 기술하는 편이다.

<충청남도 노성에 사는 백 조시의 발괄>²³⁾

우거는 원정사씨는 의녀가 본니 °치ㅎ 황화정 사옵던니 거 병술년분의 가운니 불행ㅎ와 초차 친정 동기간 불목지면 니니 거우년 산지시에 여간 가산녀 박토 오 두 심낙과 티전 서 말낙을 바리고 가기사는 다름 안니오라 미거ㅎ 동싱을 심각ㅎ와 두고 갔던니 기간셔로 종적이 업셔고 장년 지월 의 비로°쇼와 보온 직 공싱은 하나도 상관니 업시 남°의 집 고입을 ㅎ옵길네 전후를 탐지ㅎ온 직 황화정 사옵년 셔타있디이 전답 차지하여 경식한다 하길네 그 연고를 무른 직 이왕의 약값이 잇셔 차지 하엿다 운운하오니 세상의 이런 법이 잇사오릿가 약값으로 논지라도 오십오 양을 주옵고 쏘 폐빅으로 삼십양을 주옵고 그 후의 유아 약값 석양 닷돈은 감지 못하엿삽던니 남의 집 불행함을 다형이 알려 이리한 무거운 횡사를 ㅎ온니 엿지 원통치 안이 하오릿가 알을 말삼이 무궁하오나 중정이 막켜 이만 여쭙온니 참상 하옵신 후의 명박키 처분하와 전답을 불릴 닉차져 주시웁기를 천°만 복망이로소이다 (이 원정하는 일은 이 여인이 본리 치하 황화정에 살았는데 지난 병술년 즈음에 가운이 불행할 뿐 아니라 더하여 친정 동기간에 불목하는 변고가 일어나니 거우년(居憂年)에 흠어질 때에 약간 남아 있는 재산인 박토 5두락 5마지기와 치전 3마지기를 버리고 간 것은 다름 아니오라 모자라는 동생을 생각하여 두고 갔던니 그간에 서로 종적이 없었고 작년 동짓달에 비로소 와 본즉 동생은 하나도 상관이 없이 남의 집 고지기를 하기에 전후를 탐지한 즉 황화정에 살던 타인 서씨 댁에서 전답을 차지하여 경식한다 하기에 그 연고를 물은 즉 이전에 약값이 있어 차지하엿다 운운하오니

22) 이상규, 앞의 책, 2011a, 489-496쪽.

23) 현대어 번역은 이상규, 위의 책, 2011a, 495쪽.

세상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약값으로 논하더라도 55냥을 주었고 또 포목으로 30냥을 주었고 그 후에 어린 아이 약값 3냥 5돈은 갚지 못하였더니 남의 집 불행함을 다행히 알아 이러한 근거없는 행사를 하니 어찌 원통치 아니하겠습니까? 말씀이 무궁하오나 기슴이 막혀 이만 여쭙니 헤아려 생각하신 후에 명백히 처분하여서 전답을 며칠 내 찾아 주시기를 하늘 앞에 엎드려 바랍니다.)

헝헝향교시사(처분을 내려주실 일)

녀산 샷도쥬(여산 사또님)

처분(처분)

갑진 오월 일(갑진년 5월 일)

(제사)

今見 此訟與徐奴疏訟 有相反者多 三十兩酬勞之錢果 田畝之初不許給之說也 且以李致三處 二斗五升落放賣言之 亦是洪沓而徐班 胡爲斥賣 是不喻不可 以人定年久 勒行欺心之事也 往示家官題於徐宅 而措處可喜事 (지금 보니까 소송과 서씨의 노비가 올린 소송이 서로 다른 것이 많다. 30냥 수로한 돈과 처음에 논밭(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또 이치삼에게 2말 5되 쟁값에 팔라고 말했으니 서씨 집안에서 어찌 팔 수 있겠는가? 인정한 것이 여러 해 되었는데, 함부로 행동하여 마음을 속이는 일이니 옳지 않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번에 관계를 서씨 댁에 보여준 것을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표 5 <충청남도 노성에 사는 백 조시의 발괄> 원문과 해석

제시한 소지를 기존 소지의 형식적인 구조에 비추어 확인할 때, 이 소지는 소지의 기본적 글쓰기 형식을 비교적 따르고 있다. 발생한 사건, 청

원의 내용, 그리고 이 텍스트의 경우에는 실제 처분 결과²⁴⁾, 즉 제사가 수록된 것이다. 사건 개요 요약과 청원의 내용으로 본문이 구성되었으며 사건 이외의 부분에 관한 설명이나 감정, 파생된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은 간략히 기술한다. 이 소지를 기존의 소지 형식에 맞추어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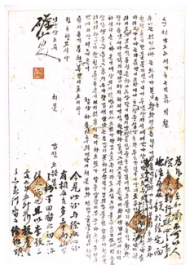


그림 1 <충청남도 노성에 사는 백 조시의 발괄> 자료

- 1) 문서 제목 및 발급 연월일
갑진년, 충청남도 노성에 사는 백 조시의 발괄
- 2) 기두어
우거는 원정사자는
- 3) 본문
의녀가 본니 °치흐 황화정 사옵던니 - 이러한 무
거한 형사를 호온니 엇지 원통치 안이 하오릿가
- 4) 결사
알을 말삼이 무궁하오나 증정이 막켜 이만 엇주온
니 참상 하옵신 후의 명박키 처분하와 전답을 불
릴 님 차져 주시웁기를 천°만 복망이로소이다
- 5) 처분양식
제사를 비롯한 착관, 인장, 관인 등의 양식을 갖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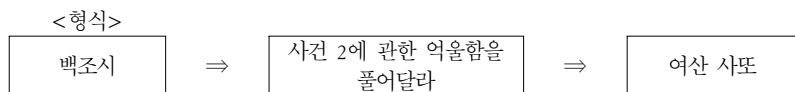
‘삼가 올립니다’로 시작되는 일련의 한문 소지 기두어와는 다소 다르지만 ‘이 원정하는 일’이라는 문구를 통해 소지가 기존의 형식을 따르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사 역시 기존의 형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게 기술하고 있다. 발신자를 여산 ‘사또’²⁵⁾라고 지칭한 부분이 다소 특기할 만하다는 번역 상의 지적이 있으며 형식을 학습했으나 발화의 도구가 바뀐 상태에서 일어난 약간의 변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개별적 사건 개요는 무엇인가.

24) 처분 결과가 따로 나타나지 않는 소지도 있다.
25) 이상규, 앞의 책, 2011a, 505쪽.

우선 발생한 사건은 백씨 여인의 친정에 남겨둔 5두락 5마지기와 치전 3마지기를 서씨가 불법으로 점거하여 이치삼이란 인물에게 판 것이다. 이웃인 서씨 집에 돈을 빌렸으나 대부분 갚고 3냥 가량을 남겨두었는데 이를 저당잡아 남은 논밭을 빼앗아 간 사건이다. 그러므로 사건 1은 ‘백씨 댁에서 서씨 댁에 약값을 빌리고 3냥 가량을 갚지 못한 것’이고 사건 2는 ‘이에 서씨 댁에서 백씨 댁의 전답을 점거해 부친 것’이다. 발신자는 백씨 여인이며 사건2에 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구체적인 청원의 내용은, 갚지 못한 3냥에 비해, 점거한 전답의 가치가 지나치게 크므로 이를 되찾아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사실, 사건 1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어난 사건은 약값을 비리고 3냥 가량을 갚지 못한 것이므로, ‘갚아야 할 일부의 돈만이 남았다(변제의 의지가 있다)’는 것과 ‘돈을 갚지 않았다(변제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 사이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전자의 입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앞선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이 소지는 그 간의 사정이나 돈을 갚지 못하게 된 정황 등에 대한 구구절절한 설명 없이, 남은 돈과 토지의 가치를 비교할 때 채권자의 이와 같은 행동은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논리적 구조는 법규의 잠재적 수신에 기반할 수 밖에 없는데, 사건에 따라 그 적용이 다소 모호한 경우들도 있다. 위의 소지에서처럼 소액의 돈을 미처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전답을 점거한 경우를 본다면,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법규와 ‘빌린 돈은 그에 상응하는 담보로 갚아야 한다’는 법규가 충돌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어찌 됐든, 빌린 돈을 전부 갚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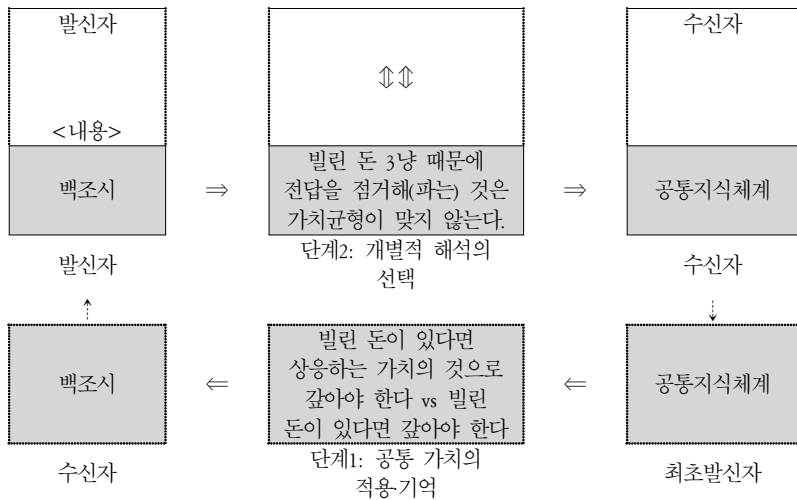


표 5 <충청남도 노성에 사는 백 조시의 발괄>의 형식적·내용적 구조

백조시의 해석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이어지는 제사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 백조시의 개별적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소지에서는 수신자인 여산 사또의 판단이 백조시의 것과 일치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린 돈 3냥을 가지고 남의 전답을 함부로 팔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것은 백조시가 선택한 ‘빌린 돈이 있다면 상응하는 가치의 것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관습적·법적 규약에 동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 소송에는 여전히 ‘빌렸으나 갚지 않는 돈 3냥’이라는 쟁점이 남아있다. 만일 사또가 앞서의 규약 대신 ‘빌린 돈이 남았다면 남아있는 재산을 통해 갚아야 한다’거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등에 동의했다면, 판결은 다르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처럼 백 씨 부인의 소지는 기존의 소지 형식과 절차를 비교적 충실히 따르고 있는 여성 주체의 발화로, 법적 관습에 대해 어느정도의 형식적·내용적 이해를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셈이다.

3.2. 공주 정안면 도현리에 사는 미망인 정씨 원정 분석

다음 제시하는 소지는 1870년 <공주 정안면 도현리에 사는 미망인 정씨 원정>²⁶⁾이다. 앞서 제시한 자료는 한문 소지와 거의 유사한 형식과 문체를 유지하는 형태였다. 그런데 <정씨 원정>은 그보다 다소 장황하고 복잡한 문체로 기술되어 있다. 서간체 혹은 가사체의 양상을 답습하고 있는 여성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입증하는 자료인데, 비슷한 특징을 가진 것으로 <전주동에 사는 남편이 고인이 된 이흥선의 처 과부 김씨 원정>²⁷⁾ 등을 들곤 한다. 그러나 소지의 공식적 제출 규범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기도 하는 김씨 원정과 는 달리, 이 장에서 제시하는 정씨 부인의 소지는 제사를 받은 기록과 관장이 있으며 증명 문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출규범을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²⁸⁾ 그렇지만 공식적 문서임에도 그 문체적 특질이 달라지며 내용적 논증의 과정과 그러한 변

26) 원문과 번역문은 이상규, 앞의 책, 2014, 56-65쪽.

27) 과부 김씨의 원정은 기록된 해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895년 이전의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제시하는 원정은 앞서 제시한 원정의 구조, 즉 사건의 개요와 청원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두어 등을 포함한 원정의 구성을 따르려고 하기는 하지만, 그 형식 자체가 다소 변형되었으며 내용의 흐름을 볼 때는 그 쓰기의 특질이 언간에 더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급자의 신분이 여성인 경우에 문서의 격식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간혹 발견된다고 하며, 이 <김씨 원정> 역시 격식을 벗어난 원정의 예로 제시되고 있다. 가사체로 두루마리 문서에 내간체로 필사한 문서로 보이는데, 이처럼 원정 자료가 편지글이나 가사 양식과 혼동되는 것은 19세기 정도부터의 특징으로 추론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상규, 앞의 책, 2011a, 465-481쪽 참조.

28) 이상규는 완산 이씨 부인의 소지 역시 서간체로 기술되어 있으나 공적 문서로서의 양식이 다소 결여되어 있어 이를 대신 사람을 보내 제출하려고 작성한 초문기로 추정한다. 그러나 입안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백문기로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지의 쓰기 양식이 서간체를 닮았다고 해서 이를 소지 초안으로 일괄적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서간체와 유사하거나 가사체를 따르고 있는 등 문체 상의 변화가 크고, 길어도 길어진 소지들 중에서도 제사나 관련 문서들이 첨부되어 최종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섞여 있었으며 그 중 하나가 정씨 부인의 소지이다.

이상규, 앞의 논문, 68-89쪽.

화가 결합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주 증안면 도현리에 거하는 미망인 증 원정 <공주 정안면 도현리에 사는 미망인 증 원정 >

<기두어>지원원통호은 정원은 다름 안이오라 미망 000 십육세의 명되 흥
흥호와 삼십여세의 주과하여 즈명이 즉시 죽지 못하옵기는 인명이 지천으옵고
일기 즈식을 의지하여 여연을 보늬가 호옵고 혈누루 시월을 보늬옵더 니 가화
갈수록 참혹하여 즈식과 손즈 다 죽고 즈부 손부를 다리고 구처한 신세를 의
지하여 지느옵다가 즈부 손부가 쏘 다 죽스오니 세상 천호의 일언 흥악한 팔
즈 어디 잇스올가

(지극히 원통한 원정사는 다름 아니오라 미망인 000 16세에 명도가 흥측하
고 험하여 30여세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어 남은 명이 즉시 죽지 못하기는
인명이 하늘에 달려 있고 일개 자식을 의지하여 남은 해를 보낼까 하고 피눈
물로 세월을 보냈더니 집안의 불운이 갈수록 참혹하여 자식과 손자 다 죽고
며느리와 손부를 데리고 구처한 신세를 의지하여 지내다가 자부와 손부가 또
다 죽었으니 세상 천하에 이런 흥악한 팔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건1>그런 등 선도를 부탁할 곳지 업스와 °친질 낙균의 붓친이 곳 썬는
문장인 고로 향화 의논호 즉 식동싱 말씀이 너 손즈로 츄손을 정호라 호기에
그날벗땀 낙균의 손즈 셋이 유아을 승손으로 구량호야 근 십연 곁공호여 길너
삼더니 스부 초상시에 발상을 식기라 호온즉 낙균니가 줄지 변사호여 조상과
제의 붓친 유원을 좇지 안니호고 조상도 모르고 스스로 위한호고 횡설슈설 노
쥬지 안니 호온 즉

(그런 중 선조의 봉제사를 부탁할 곳이 없어 친척 조카 낙균의 부친이 그때
는 집안의 제일 어른인 때문에 향화를 의논한 즉 시동생 말씀이 자기 손자로

차손을 정하라고 하기에 그날부터 낙균의 손자 셋째 어린 아이를 승손으로 구책으로 헤아려 근 10년 공을 들여 길렀더니 남편의 초상 때에 발상을 시키려고 한즉 낙균이가 졸지에 말을 바꾸어 조상과 저의 부친의 유언을 따르지 않고 조상도 모르고 스스로 약속을 어겨 횡설수설하며 놓아주지 아니 한 즉)

<사건2>웃지할 슈 업스와 짓궂동성 허여 다리고 서로 의지하여 지늬옵더니 일년 지닌 후 낙균이가 종가의 여간 전답과 직물을 욕심내어 무삼 마암으로 서루 한 양 손을 파양식기고 제 손즈을 도로 입후하옵기에 낙균의 소위는 암모리 불측하나 일변으로는 고륙인고로 지궂동성하난니보덤 낫습기로 도로 저을 짜라 연연을 보낼가 하였습더니

(어찌 할 수 없어 일가 가운데 한 사람을 골라 계후자로 세워 데리고 서로 의지하여 지내 왔더니 일 년 지난 후에 낙균이가 종가의 약간의 전답과 재물을 욕심내어 무슨 마음으로 서류를 제출한 양으로 양손을 파양시키고 제 손자를 도로 입후하였기에 낙균의 행한 바는 아무리 불측하지만 한편으로는 골육인고로 일가 중에서는 (계후자를 얻는) 것보다 나를 듯 싶어 도로 낙균을 따라 세월을 보낼까 하였더니)

<사건3>그날부터 구박이 자심하여 구십 늘근니 공양은 고스르고 몸이성한 썩는 거한니 자심하옵고 병든 썩는 한 첩 약도 오더 먹지 못하고 빅모라 업시 구슈로 아옵고 쏘한 속으로 큰집 전답을 발미하라고 여긔저긔 청촉하며 슈야로 경영하여 일경 종가를 업시하라 호은 즉 미망인의 신세는 생전 스후의 탁할 곳시 업스와 싱각다 못하여 출가한 손여을 짜라가서 잔명을 의지하고 여간 전답을 잇습는디 그거션 미망인니 덕슈로 치산하여 거한도 모르고 침션과 길슴 등 의셔 여간 직물을 오더 푼으로 모되고 낫스로 모디어 가드와 전답을 성장하였습더니 말연 신계 이렛타 곤궁호오니 싱후스를 누가 듀생하여 이 무듀고혼을 한즈 배와 한 쪼각 늘거두어 쥬울잇가 싱각다 못하여 전장 등 일등 전답은 봉스조로 제하고 남이지 박토 삼십 °늑 두낙을 °광정구 선달 가의 팔라 새후 슈의도 장만하고 싱전 의식도 붓티어 처리라 호은즉 낙균이가 저는 딸

지 못하고 빅모 과■는 거슬 양양이 여겨 스방으로 저희하고 아모조록 제가 도미하라 흐옉기에 영문과 본관의 정호와 입지까지 노여 방미혔었습더니

(그날부터 구박이 점점 심해져 구십 늙은이 공양은 고사하고 몸이 성한 때는 추위가 더욱 심하고 병든 때는 한 첩 약도 얻어먹지 못하고 백모라 업신여기고 늙은 원소로 알고 또한 속으로는 큰집 전답을 팔아먹으려고 여기저기 부탁하고 주야로 경영하여 일군 중가를 없애려고 한즉 미망인의 신세는 생전사 후 의탁할 곳이 없어 생각다 못하여 출가한 손녀를 따라가서 잔명을 의지하고 약간의 전답이 있는데 그것은 미망인이 빈손으로 치산하여 추위도 있고 침선과 길삼을 하여 약간의 재물을 얻어 푼푼이 모으고 날으로 모아서 집과 전답을 이루었더니 말년의 신세의 계책이 이렇듯이 곤궁하오니 생후 사를 누가 주선하여 이 주인없는 외로운 혼을 한자 배와 한 조각 늘여 주겠습니까? 생각하다가 못하여 전장 중에 일등 전답은 봉사조로 제외하고 나머지 박토 36두락을 광정구에 사는 선달 다텔에 팔아 사후에 수의도 장만하고 생전에 의식도 보태어 처리하리라 한즉 낙균이가 “저는 따르지 못하겠다고 백모와는 ■■것을 양양이 여겨 사방으로 가로막고 방해하고 아모조록 제가 도매하리라”하기에 영문과 본과에 정소하여 입지까지 만들어 첨부하여 방매하였으니)

<사건4>낙균의 심스 갈수록 불측하여 미망인니 말러썬논과 봉사조로 제외하여 둔 전답과 손여 깃분흔 전답을 흐되 쳐서 남기지 안니하고 전문을 위조하여 유계가의 몰슈 도미흐온 즉 미망인에게 산 스람이 시비되단흐오니 미망인은 낙균의 중가 빅모옉고 적슈성가하여 전답 장만한 전 죽어서 법리가 엇지호와 미망인은 알지 못하고 낙균이가 위조물로 도미호리잇가

(낙균의 심사가 갈수록 불측하여 미망인이 마련한 논과 봉사조로 제외해 둔 전답과 손녀에게 분재해 준 던답을 한테 쳐서 남기지 아니 하고 전문을 위조하여 유씨 다텔에 몽땅 도둑질하여 팔아먹은 즉 미망인에게 (이전에 전답을) 산 사람이 시비가 대단하오니 미망인은 낙균의 중가 백모이고 빈손으로 집안을 일으켜 전답을 장만한 전답의 주인으로서 법리가 어찌하여 미망인은 알지 못

하고 낙균이가 위조문서로 도둑질하여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결사>일월갓치 받그신 정치로 각각 사실호오며 미망인니 방지한 전답으로서 답주로 흐지호여 드시 시비 업시호웁고 봉스조 전답은 일일이 흐져누디 무똥고혼으로서 으더 향화나 잇게 결쳐호시고 미망인의 조■을 ■■보치 못할 잔명을 다만 일시라도 세상의셔 안심호여 쥐기게 하렘호옵시기 천만 바라옵누이다

(일월같이 밝은 바른 처분으로 각각 사실을 밝혀 미망인이 방지한 전답으로서 답주로 차지하여 다시 시비가 없게 하고 봉사조 전답은 일일이 찾아내어 누대 무고고혼으로서 (계후자들) 언어 향화나 잇게 결쳐호시고 미망인의 조0을 00보치 못할 잔명을 다만 일시라도 세상에서 안심하고 (살수있게) 굶어살 피시기 천만 바라옵니다.)

<제사>

申洛均之不念叔母事，疑倘券盜賣，幾節香火，無乃得罪其祖先乎，許多罪，次從審照法，■■是在果，■■家舍沓庫，如有■其價■■，相方賣 則營■治，還徵於盜賣之人，永久勿以保社後弊之意，仍成立旨，以捨耳

(신낙균이 숙모를 생각하지 않은 일은 아마도 당권을 훔쳐 팔아 거의 봉제사가 끊기려 하니 어찌 선조들에게 죄를 진 것이 아니겠는가? 많은 죄를 여기 법에 따라 심사해서 00이다가, 00집 사답고가 만약 0하여, 그 값이 00하여 서로 판다면 0치를 영위할 것이다. 다시 장물을 산 사람을 불러 영원히 뒷 폐단을 일으키지 않게 해야 마침내 세운 뜻을 이루어 흡족할 것이다.)

표 6 <공주 정안면 도현리에 사는 미망인 정씨 원정> 원문과 해석

이 원정에는 5)에 해당하는 기본적 양식이 들어가 있지만 기두어와 결사는 일부 변형이 있다. 그러나 형식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어서 기두어와 결사를 사용하며 문서의 제목도 비교적 명확히 기술된다. 따라서 형식적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문서 제목 및 발급 연월일

날짜 미상 <공주 정안면 도현리에 사는 미망인 증 원정>



그림 2 <공주 정안면 도현리에 사는 미망인 정씨 원정> 자료

2) 기두어

지원원통호은 정원은 다름 안이오라-홍악한 팔즈 어디 잇스올가

3) 본문

사건1-4(그런 둥 선도를 부탁할 곳지 업스와-낙균이가 위조문로 도미호리잇가)

4) 결사

일월갓치 밭그신 정치로-천만 바라옵느이다

5) 처분양식

제사를 비롯한 착관, 인장, 관인 등의 양식을 갖추.

해당 소지에 기술된 사건은 정씨 부인과 조카 낙균 사이에 벌어진 문제가 중심인데 서로 연결된 사건이며 몇가지 갈등의 요소가 있다. 사건 1은 낙균의 셋째 아들을 종가의 계후자로 삼았는데 낙균이 말을 바꾸어 계후자를 파악했다는 것이다. 사건 2는 낙균의 아들 대신 일가의 한사람을 계후자 삼았는데 낙균이 종가의 재물을 탐하여 바뀐 계후자 대신 원래 자신의 아들을 다시 계후자로 삼은 것이다. 사건 3은 정씨 부인이 재산을 일부 팔아 노년을 지내려는 것을 낙균이 막은 것이다. 사건 4는 정씨 부인이 재산을 파는 것은 낙균이 위조문서를 만들어 재산을 모두 유씨 덕에 팔아 넘긴 것이다. 사건이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씨 부인이 원정을 쓴 직접적인 이유는 사건 4 때문이다. 소지 내에서 발신자는 원통한 삶을 구구절절 토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인 사건 4에 집중하는 글쓰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글쓴이인 정씨 부인의 기구

한 팔자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정황 설명이기도 하다. 남편과 자식, 손자와 며느리가 다 죽었기 때문에 집안의 대를 이을 양자가 필요했고, 이것이 사건의 단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낙균의 나쁜 성정을 강조하는 부분은 사건 1과 2, 그리고 3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관련되며, 이러한 일들이 최종적으로 ‘위조문서’를 만들어 법규를 위반한 사건 4의 기반이 되었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종가의 계후자를 정하는 일은 중요한 결정인데, 이를 반복, 재번복한 것은 낙균이라는 인물이 약속과 관습적 규약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종가의 계후자를 세워 집안을 이어가려던 정씨 부인의 노력을 기술하면서 종가와 종가의 재산을 지키려는 정씨 부인의 태도와 그 반대에 있는 낙균의 태도를 대조한다. 이는 규칙을 수호하고 관습을 계승하고자 하는 주체가 낙균이 아니라 이미 미망인이 된 정씨 부인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만일 종가의 관습을 유지하고 상황의 정의를 세우고자 한다면, 정씨 부인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판결임을 기술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소지에서는 인간체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는 문체적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는 내용적인 차원에서는 여성의 자기 서사적 글쓰기의 형태와도 유사해 보인다.²⁹⁾ 그런데 이러한 글쓰기가 단순히 사적인 글쓰기 형식의 전용을 위해 활용된 것으로만은 보이지 않는다. 소지의 목적이 자신이 판단한 방향으로 최종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라 본다면 이러한 구구절절한 사연의 확장은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고 강조하는 정황증거로서도 기능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소송이 산송을 비

29) 인간의 사적 ‘내용’과는 달리 인간체가 가지는 규범성 및 관습성에 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들이 언급한 바 있다. 소지는 그 규약적 특징이 중요하므로 자연히 인간적 글쓰기와 겹쳐진다. 그런데 소지의 기술에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심정적 토로와 확장이 강조되므로 이것은 ‘자기서사적 글쓰기’와도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자기서사적 글쓰기의 특질과 관련해 조혜란은 그 반복 서술과 절제 서술을 들고 있으며 이는 인간에서도 자기 서사에서도 일부 겹쳐져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조혜란, 『고전 여성 산문의 서술 방식 - 「규환록」을 중심으로 -』, 『이화어문논집』 17, 이화어문학회, 1999, 302-309쪽.

롯한 종가의 규범적·법적 문제와 결부되고, 이 소송에서는 특히 종가의 남성과 종가의 여성이 대립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이 소송의 주제로 소지를 기술하는 상황에서 종부의 자기 서사 이상으로 유효한 정황 증거는 없다.³⁰⁾

이를 토대로 소지 내부에서 어떤 논리적 의사소통 과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소지에서는 발생한 사건이 4가지이며 개별 사건에서 배치되는 가치의 체계 역시 각각 추출할 수 있다. 우선, 사건 1과 2는 ‘종가에서는 계후자를 세울 수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관습을 지킨다’이라는 일종의 관습법을 어긴 것을 지적한다. 사건 3 역시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종가의 재산을 정씨 부인이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다. 사건 4에서는 ‘조카 낙균이 종가의 재산을 위조해 팔았다’는 가장 문제적인 지점이 지적된다. 사건3에서 정씨 부인이 활용한 ‘종가의 재산 처분권은 종부에게 있다’는 법규나 관습은 공통지식체계 안에 있는 것이며,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전체를 학습했기에 가능하다. 그러므로 ‘종부가 아닌 낙균이 종가의 재산권에 개입했다’는 개별적 상황을 일종의 위반으로 인지하여 소지를 기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씨 부인은 이를 소로 제기할 수 있음을 파악하고, 어떠한 법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한다. ‘종가의 재산 처분권은 종부에게 있다’와 종가의 재산 처분권은 (남성) 후계자에게 있다.’가 갈등관계에 놓여 있으나 이 중 전자의 법과 관습이 지배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설사 후자가 우세하다고 해도 낙균이 재산을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씨 부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쉽다. ‘재산의 매매 과정에서 위조 문서를 사용할 수 없다’와 ‘재산의 매매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위조 문서를 사용할 수 있다’

30) 소지의 내용을 한문 소지와 한글 소지로 나누어볼 때, 한글 소지가 좀 더 사연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구어체를 띠는 것,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여성이 원통한 사정을 이야기하여 재판관의 동정을 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흥은진의 논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흥은진, 앞의 논문, 142쪽.

의 경우 갈등 관계에 놓이는 두 전제이지만, 앞서의 두 전제의 관계보다는 보다 명확하게 전자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정씨 부인은 사건 4의 가치 대립을 기반으로 사건 4의 해결을 요구하면서, 사건 1,2,3에 개입된 미해결된 가치 대립적 구도를 자신의 승소를 위한 근거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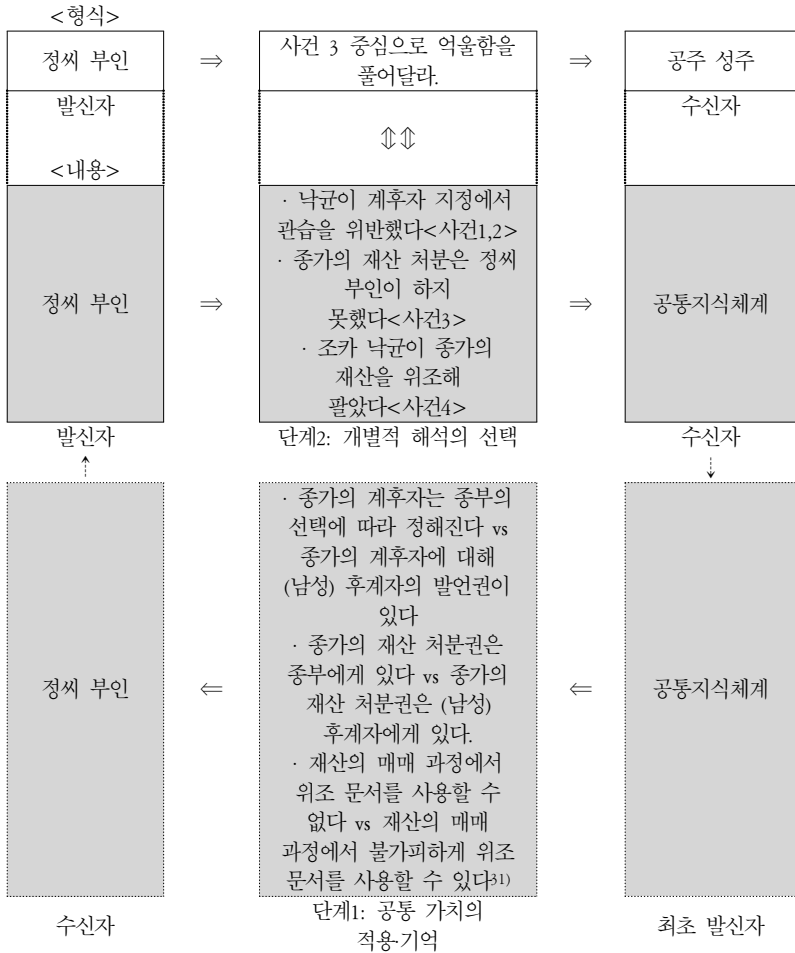


표 7 <공주 정안면 도현리에 사는 미망인 정씨 원정>의 형식적·내용적 구조

4. 공적 지식체계와의 매개로서 여성의 한글 소지 쓰기

이처럼 여성들이 기술한 한글 소지 역시 형식적 규약들을 따르는 쓰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어느정도 변형은 있지만 이를 충실히 따름으로써 공적 담론을 학습했음을 입증한다. 법규의 개별적 해석이 있다고 하지만 애초에 선택항으로 주어진 법적·관습적 규약이란 새로운 주체들의 시각을 포괄하는 전향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빌린 돈이 있다면 상응하는 가치의 것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가치 체계에 기반한 백씨 부인의 소지도, ‘중가 운영의 권한이 종부에게 있다’는 정씨 부인의 소지도 그 자체로 기존과는 다른 체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비 일반적인 내용의 청원을 기술한 것도 아니다.³²⁾ 실상 소지를 통해 사건에 대한 개별적 해석을 보여준다는 것은 여성들만의 역할이 아니라 소지 쓰기의 주체들이 보편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지의 한글쓰기와 여성 소지의 쓰기가 조용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법 규범에 대한 관찰자에서 벗어나 스스로 이를 해석하고 발화하는 주체로 변모하고 이는 기록으로 축적되어 남겨진다.

따라서 여성 주체의 한글 소지 쓰기는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 모두에서 여성 주체와 공적 지식체계와의 소통을 명시한다. 여성의 이름으로 기술된 한글 소지는 첫 번째로 여성이 공적 담론의 발화자가 되었음을 드러내며 두 번째로는 이것을 보다 보편적 여성이 공유할 수 있는 의사소통 도구인 한글을 통해 기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과정에서 여성 주체의 글쓰기는 한글 소지에서도 일종의 형식적 변형 가능성을 제시한

31) 앞서에서도 그렇지만 하나의 사건 인식과 관련해 활용되는 판단의 근거, 즉 학습된 관습이나 법규는 복합적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 의사소통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므로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단수의 논리적 전제들을 통해 그 틀을 구축해보고자 했다.

32) 소지를 내용별로 분류했을 때 개인 민원으로는 토지 쟁송, 토지 도매, 권리 확보, 부세 등이 있으며 집단 민원에는 공공성, 조상현양, 산송 등을 포함한다는 논의를 확인했다. 본고에서 분석한 여성의 소지 역시 이러한 분류에 포함된다.

정금식, 앞의 논문, 24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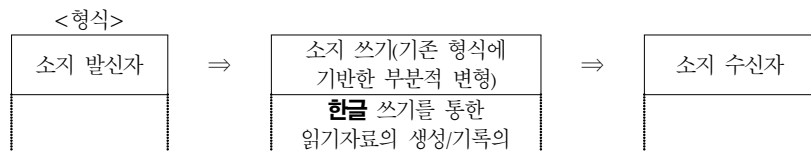
다. 한문에 비해 확장과 변형이 용이한 한글의 체계를 통해 소지 쓰기에 언간체의 개입이라는 특징적인 경향이 포착되는 것이다. 한문을 습득하고 한문적 쓰기의 양식을 습득한 주체와 한글 쓰기의 양식을 주로 습득한 주체의 글쓰기란 다소 다른 지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단순히 여성이 전유하던 사적 글쓰기 방식이 공적 글쓰기 방식에 혼합된 것이라기보다는 법적 체계 안에서 법적 정당성을 입증하는 방식이 확장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자신의 삶이 일종의 정황증거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백씨 부인의 소지쓰기는 그 변형의 양상이 크지 않았고, 정씨 부인의 소지는 이와 같은 여성적 글쓰기의 형식이 좀 더 강조되고 있다는 차이는 있으나 사적 글쓰기의 형식과 사적 글쓰기의 내용이 공적 지식체계인 소송과 청원의 과정과 상호소통하고 있다는 지점이 흥미롭다. 여성의 한글 소지 쓰기는 따라서 공통 지식체계와의 소통이 연속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면서도 그 독특한 발화의 양식이 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³³⁾

또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내용적 측면에서 여성의 법적 지식 선습득과 선이해의 과정이다. 법적·관습적 체계에 포함되는 발화란 선행 지식이 기반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과정이다. 이 선행 지식이 모두 여성 개인의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법적 발화의 존재는 공통 지식체계와 여성 주체들의 의사소통이 발현되지는 않았으나 누적되어 왔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글 이전, 한문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대부분의 여성들이 공통지식에 기반한 법과 제도를 습득하는 과정은 분명

33) 이 두 소지를 제시한 것은 그 글쓰기의 양상을 비교하고자 한 것일 뿐, 이러한 양상이 통시적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을 위해서는 아니다. 한글 소지가 애초에 한문 소지의 영향을 받았다면 한글 소지가 ‘점차적으로’ 자유로운 글쓰기로 변해가는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경향이 19세기 이후에 좀더 본격적으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반드시 통시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앞서 제시한 백씨 부인의 발괄이 김씨 부인의 원정보다 후대의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동시대의 글쓰기 내에서도 발신인에 따라 그 쓰기의 양상이 혼재된 것으로 보았다.

히 남성-사족층과는 달랐을 것이다.³⁴⁾ 여성 중 문자를 읽고 쓰는 계층이 소수였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해도 체계 안에서 체계를 운용하는 지식에 접근하는 방식이 전무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예컨대, 한글 이전에는 구술적, 체험적 습득이, 한글 이후에는 한문 자료의 번역을 통한 습득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글 사용의 확대로 인해 법제도나 구성에 대한 지식의 습득이 단순히 구술적이거나 경험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공식문서 읽기와 확인, 기록을 통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글로 기술된 문서에 기반한 채권과 채무에 관한 판결의 기록, 종가의 관습에 관한 판결의 기록, 혹은 그밖에 다른 판결의 기록들은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가 되고, 선례로 남겨진다. 구술전승이나 체험, 혹은 번역 등에 기반한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가능했던 공통 지식의 습득이 보다 직접적이고 명확한 방식을 통해서도 성립된다면, 그 이후로 구성되기 시작한 공통 지식체계와 그 이전의 공통지식체계가 가지는 특질은 다를 수밖에 없다. 한글 사용이 단순히 한글의 사용자를 확대하면서 기존 지식의 망을 넓히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의미 있는 공적 영역에 대한 개별적 해석과 편입을 용이하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 주체의 공문서 기술은 그 간 발현되지 않았던 여성과 공통지식체계의 소통을 입증하는 동시에 차후 여성과 공통지식체계의 소통 방식을 지시하는 전환이 된다. 이러한 양상은 다음과 같은 표로 다시 나타낼 수 있다.



34) 이를 언문과 구술을 통한 지식 습득으로 지적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이경하, 『중세의 여성 지성과 문자의 관계』, 『여성문학연구』 2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46-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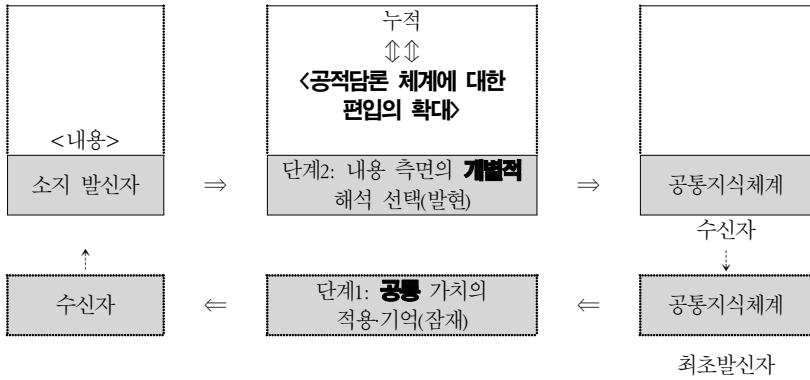


표 8 공통지식체계의 매개로서 한글 소지의 형식적·내용적 의사소통구조

5장. 결론

한글 소지는 여성 주체들의 공적 글쓰기 체계 편입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법적 해석과 관련된 세계의 편입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읽기와 쓰기의 배제는 공적 수행과 행위의 배제를 수반한다. 그러나 한글 소지 쓰기를 통해 여성들이 실질적인 법적 해석과 수행의 주체로 기능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미세하나마 포착할 수 있었다. 다양한 목소리들이 법적 체계의 해석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해석의 양식이 변형되고, 이는 기록으로 남겨져 누적된다. 비록 여성 주체들의 해석이 기존 법적 체계의 세계관을 이어받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주체의 변모는 체계의 변형 가능성을 작지만 명확하게 시사한다. 공적담론의 체계로 여성들이 편입하는 과정에서 보편적 형식과 개별적 적용의 이중적인 양상이 드러나며 그것이 긴장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구축된 혼합적인 글쓰기 체계가 내용적인 측면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것이다. 현대의 법적 체계 속에서도 여성의 시선 즉, 소수자적 시선에서 적용되는 판결과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그러므로 한글 소지는 여성들이 공적 해석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공적 담론과 사적 담론의 매개자로서 점차 그 범위를 확장하는 연속적이고도 독립적인 체계의 구축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여성은 오랫동안 쓰기의 주체가 아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며, 한글 소지란 소지가 단지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일 뿐 여성들의 담론 편입을 통해 세계가 크게 변모하지 않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내용적 측면에서 사건의 정황과 개요,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여성의 인식이 있었음이 한글 쓰기를 통해서 드러난다. 기존의 법과 체계, 관습의 구성에도 여성들이 어떤 식으로든 기여했을 것이나 그것은 읽기와 쓰기의 기록이 없었기에 발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문서 쓰기에서 여성의 이름과 목소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은 잠재된 목소리의 발현이며 따라서 그 자체로 변화이다. 이는 양반, 한문, 공적으로 표상되는 기존 지식 담론 내에서는 배제되어 독립적인 담론을 구성한다고 믿어졌던 여성 주체들 역시 한글이라는 의사 소통 체계를 통해, 기존 담론을 구성하고 구상하는 주요한 주체로서 기능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의미가 된다. 글쓰기의 차원에서는 공적 형식을 답습하면서도 그 확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기존의 한문쓰기에서 담보되기 어려웠던 범위의 개별적 쓰기를 보이기도 하며, 읽기의 차원에서는 새로운 한글 자료의 누적을 통해 새로운 매개로 구축되는 읽기자료를 확보하는 주체이다. 한글을 기반으로 한 여성의 읽기와 쓰기의 활동, 지식생산의 활동이 기존 담론과 유리되었거나 혹은 이례적 출현이라는 점이 아니라 ‘잠재된’ 인식을 비로소 표면으로 드러낸 동등한 분화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이상규, 『한글 고문서 연구』, 경진, 2011, 5-1092쪽.
_____, 『한글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 사람들의 삶-한글 고문서 자료집』, 2
문화체육관광부, 2011, 4-178쪽.
_____, 『한글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 사람들의 삶-한글 고문서 자료집』,
경진, 2014, 4-315쪽.
전경목 외, 『유서필지』, 사계절, 2006, 1-405쪽.

2. 단행본

- 김성갑 외, 『소송과 분쟁으로 보는 조선사회』, 새물결, 2017, 9-280쪽.
김정경, 『조선 후기 여성 한글 산문 연구』,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6, 5-342쪽.
박병호, 『한국법제사고』, 법문사, 1987, 1-476쪽.

3. 논문

- 김용경, 『평해 황씨가 완산이씨의 유언 및 소지』, 『문헌과 해석』 14, 문헌과
해석사, 2001, 76-88쪽.
김한별, 『언간 자료를 통한 음운사 연구 방법에 대한 시론 : 『의성김씨 학
봉 중가 언간』 을 대상으로』, 『국어사연구』 21, 국어사학회, 2015,
195-238쪽.
박애경, 『근대 초기 공론장의 형성과 여성주체의 글쓰기 전략』, 『한국고전
여성문학연구』 3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329-355쪽.
백두현, 『〈현풍 광씨 언간〉의 음운사적 연구』, 『국어사 자료 연구』 1, 국
어사자료학회, 2000, 97-130쪽.
_____, 『『현풍 광씨 언간』의 종합적 고찰』, 『어문론총』 36, 경북어문학
회, 2002, 1-29쪽.
_____,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 - 한글 편지와 한글 고문서를 중

- 심으로 -, 『어문론총』 42, 한국문학언어학회, 2005, 39-85쪽.
- 안승준, 『조선시대 한문·한글 병용 古文書 三例의 고찰』, 『국어사연구』18, 국어사학회, 2014, 119-159쪽.
- 이경하, 『중세의 여성 지성과 문자의 관계』, 『여성문학연구』 2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31-55쪽.
- 이상규, 『17世紀 黃汝一의 淑夫人 完山 李氏 한글 遺書와 所志』, 『동아인문학』 16권 16호, 동아인문학회, 2009, 65-102쪽.
- 이승일, 『근대 이행기 소송을 통해 본 전통 민사재판의 성격 - 고음의 소송상의 의미를 중심으로 -』, 『한국고문서연구』 51, 한국고문서학회, 2017, 285-316쪽.
- 전병용, 『한글 簡札의 常套的 表現 考察』, 동양고전연구, 37, 동양고전학회, 2009. 279-306쪽.
- 조혜란, 『고전 여성 산문의 서술 방식 - 「규한록」을 중심으로 -』, 『이화어문논집』17, 이화어문학회, 1999, 295-311쪽.
- 홍윤표, 『한글 고문서의 연구 현황과 과제』, 『영남학』10권 10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6, 185-262쪽.
- 홍은진, 『求禮 文化柳氏家の 한글所志에 대하여』, 『한국고문서연구』 13, 한국고문서학회, 1998, 111-143쪽.
- 홍인숙, 『근대계몽기 지식, 여성, 글쓰기의 관계』, 『여성문학연구』 2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57-86쪽.

Abstract

Study on Public Discourse Produced by Female Subjects

: Focusing on Discursive Structure of Petition in Hangeul

Hwang, In-soon

This essay will focus on discursive structure of Korean petition in Hangul, Korean letters. Korean petitions have to be described only in Hanmun, Chinese letters, Hangeul-written petitions were gradually approved an official document as well. Therefore, female beings started to construct Hangul-written petitions with their own names. This change can show how female beings present their accumulated knowledge using new describing tool, Hangeul.

Petition is a document having public character and also individual character as it is a communication to public organization from individuals. In this essay, it is important to comprehend the communication structure divided into discursive level and substance level. The first discursive level analyzes the describing aspect, writing itself. On the other hand, second substance level analyzes the embedded logical structure from surface discursive structure. Females have learnt public regulations and they tried to prove it participating the public writing space.

The transfusion of new public writing subjects, female beings slightly change the writing style influenced by existing Eongan, Hangeul letter, style. On the other hand, the application of a law

does not be considered the transformational. However, Petitions by females name, writing and their own perception, clearly announce the new, and shared subjects of public discourse. Hangeul is the mediator to expose their cumulative knowledge.

Key words : Public documents in Hangeul, Petitions in Hangeul, Female Knowledge system, Discursive-logic structure, Writings in Hangeul.

■ 본 논문은 2018년 11월 22일에 접수되어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8년 12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